



## 요약

최근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진 금융투자 권역으로 IRP 적립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IRP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내리므로 금융회사의 운용 능력이 투자수익률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금융권역별 수익률의 차이는 실적배당형 투자 비율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험회사는 설계사 및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및 IRP 적립금 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IRP 적립금 증가세가 두드러짐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5조 원으로 최근 5년간 100조 원 이상 증가하였음
- 특히 IRP의 적립금은 2016년 12.4조 원에서 2020년 34.4조 원으로 22조 원 가량 증가하였음
  - IRP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2.6%로 전체 적립금 증가율 11.7%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임
  - IRP의 연도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23.4%, 2018년 25.5%, 2019년 32.3% 그리고 2020년 35.4%로 매년 커지고 있음
  - IRP 계약 건수 역시 2015년 238만 건에서 2020년 419만 건으로 증가하였음<sup>1)</sup>

〈표 1〉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조 원)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연평균 증가율 |
|-----|-------|-------|-------|-------|-------|---------|
| DB  | 99.6  | 110.9 | 121.2 | 138.0 | 153.9 | 9.1%    |
| DC  | 35.0  | 42.3  | 49.6  | 57.8  | 67.2  | 13.9%   |
| IRP | 12.4  | 15.3  | 19.2  | 25.4  | 34.4  | 22.6%   |
| 합계  | 147.0 | 168.5 | 190.0 | 221.2 | 255.5 | 11.7%   |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자료를 재구성함

## ○ IRP 개설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IRP에 적립금을 납입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짐

- DB·DC형 퇴직연금과 달리 IRP는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금융회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운용지시 역시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가입자 스스로 함

-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에 적립금 납입 시 최대 700만 원까지 13.2%(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sup>2)</sup>
  - 세액공제와 노후소득원 확보에 대한 관심 증가가 IRP 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판단됨

#### ○ 금융권역별 IRP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과 금융투자권역은 전체 점유율보다 높은 반면 보험회사의 IRP 점유율은 전체 점유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DB 63%, DC 41.5%) 전체 점유율이 51%인데, IRP에서는 69.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 은행의 DB·DC형 가입자 기반과 고객 접근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보험권역은 DB에서 생·손보를 합쳐 36.7% 점유하고 있으나 IRP는 생보가 7.4%, 손보가 1.3%를 점유하고 있음
- 금융투자권역은 IRP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표 2〉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형태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분   | DB   | DC   | IRP  | 전체   |
|------|------|------|------|------|
| 은행   | 41.5 | 63.0 | 69.3 | 51.0 |
| 생명보험 | 29.4 | 13.7 | 7.4  | 22.3 |
| 금융투자 | 21.8 | 15.9 | 21.9 | 20.2 |
| 손해보험 | 7.3  | 2.5  | 1.3  | 5.2  |

자료: 금융감독원(2020),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활용하여 산출함

#### ○ 최근 IRP 가입자와 적립금이 금융투자 권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주요 6개 증권회사<sup>3)</sup> IRP금액 중 은행·보험회사에서 유입된 자금은 2019년 2,320억 원, 2020년 5,491억 원 그리고 2021년 3월까지 3,81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자금 이동으로 인해 은행권 IRP 점유율은 2020년 말 69%에서 올해 1분기 67%로 2%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증권사 점유율은 21%에서 24.4%로 3.4%p 증가함
- 최근 국내 증시 활황으로 실적배당형 투자는 증권회사(금융투자 권역)가 유리할 것이라는 가입자의 기대 등으로 인해 개인이 가입하는 IRP의 경우 증권회사(금융투자 권역)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TF(Exchange Traded Fund),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등은 증권회사에서만 투자가 가능함

#### ○ 이는 IRP 개설 금융기관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가입자가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금융투자 권역으로 자금을 이동 시키기 때문으로 판단됨

2) IRP의 세제혜택 상한은 700만 원이며 50세 이상이면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 상한 900만 원이 적용됨.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5%, 이상자는 12%가 적용됨

3)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임

- 금융투자 권역의 중장기 수익률은 2.24%(5년)와 2.84%(10년)로 여타 권역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난 1년간 금융투자 권역의 수익률은 3.78%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은행보다 50% 이상 높았음
  - 이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기간별 수익률

(단위: %)

| 구분  | 은행   | 생명보험 | 금융투자 | 손해보험 |
|-----|------|------|------|------|
| 1년  | 2.26 | 2.39 | 3.78 | 2.03 |
| 5년  | 1.65 | 1.94 | 2.24 | 1.91 |
| 10년 | 2.42 | 2.61 | 2.84 | 2.64 |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 그러나, 투자형태별(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모든 금융권역의 수익률이 유사한 수준임

- 2020년 원리금보장형은 생명·손해보험회사 수익률이 가장 높고, 실적배당형은 손해보험회사 수익률이 가장 높음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 사용자(DB형) 혹은 근로자(DC형, IRP)가 내리므로 수익률의 차이를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능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표 4〉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투자형태별 수익률

(단위: %)

| 구분     | 연도    | 은행    | 생명보험  | 금융투자  | 손해보험  | 전체    |
|--------|-------|-------|-------|-------|-------|-------|
| 실적배당형  | 2019년 | 4.53  | 7.20  | 7.42  | 5.43  | 6.38  |
|        | 2020년 | 10.05 | 11.17 | 11.20 | 12.06 | 10.67 |
| 원리금보장형 | 2019년 | 1.99  | 1.85  | 1.98  | 1.62  | 1.77  |
|        | 2020년 | 1.47  | 1.92  | 1.88  | 1.92  | 1.68  |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 금융투자권역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금융회사의 운용능력 차이보다는 가입자 포트폴리오 구성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권역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 중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이 20% 수준인 데 비해, 은행은 10% 안팎,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5%와 1% 안팎으로 나타남
  - 이는 높은 수익을 위해 IRP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할 만큼 수익률에 민감한 금융투자권역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운용 지시를 내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5〉 금융권역별 실적배당형 투자 비중

(단위: %)

| 구분   | 은행   | 생명보험 | 금융투자 | 손해보험 | 전체   |
|------|------|------|------|------|------|
| 2017 | 7.9  | 4.9  | 17.1 | 1.2  | 8.4  |
| 2018 | 9.4  | 5.2  | 18.7 | 1.2  | 9.7  |
| 2019 | 10.3 | 5.4  | 19.7 | 1.2  | 10.4 |
| 2020 | 9.9  | 5.3  | 21.8 | 1.3  | 10.7 |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 보험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IRP 시장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가입자에게 IRP 개설 금융회사 결정 시 수익률이 중요 결정요소이므로 여타 금융권역(증권사 혹은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의 실적배당형 투자수익률이 낮지 않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고객이 자신의 IRP 및 퇴직연금 자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운용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설계사의 IRP를 통한 고객접점 확보 및 연계상품 판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면 IRP 가입 및 운용 관련 조언에 설계사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자산운용 정보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 유안타증권 등 증권회사들은 IRP 시장 확대를 위해 수수료를 무료화하였으며, 보험회사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전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